

제 30 호 · 2017 년 2 월 8 일

항만·물류연구본부 | 국제물류연구실
총괄·감수 | 이 성 우 본부장

KMI 극동러시아 동향 리'포'트



한국해양수산개발원
KOREA MARITIME INSTITUTE

플류이슈

국제교통회랑 개발 진행상황 및 한계점

러시아 정부의 국제교통회랑 '프리모리예-1', '프리모리예-2' 프로젝트 개발 구상 승인

- 작년 말 러시아 정부가 국제교통회랑 '프리모리예-1', '프리모리예-2'의 개발 구상을 승인함
- 러시아 정부의 국제교통회랑 프로젝트는 인프라의 건설 및 현대화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 영토를 통과하는 국제 운송화물의 지속가능한 물동량 창출을 지향하는 법적 제도적 조치를 완벽하게 됨
- 또한 국제교통회랑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와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, 극동지역의 사회적 안정보장, 지리적 경쟁력 구축과 발전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국제교통회랑 '프리모리예-1', '프리모리예-2' 구간



자료: Google map, KMI 재구성



- '프리모리에-1' 구간은 하얼빈 – 무단장 – 수분하/포그라니치니(도로), 수분하/그로데코보 (철도), 수분하/폴타브카 – 우수리스크 – 블라디보스토크항/보스토치니항/나호트카항임
- '프리모리에-2' 구간은 창춘 – 지린 – 훈춘/크라스키노(도로), 훈춘/마할리노(철도) – 자루비노항임

국제교통회랑 '프리모리에-1', '프리모리에-2' 프로젝트 개발 상세 내용

- 이번에 발표된 국제교통회랑 프로젝트 개발 구상에는 프로젝트의 목적, 과제, 계획, 기본적인 국가 정책 방향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
- 국제교통회랑의 목적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가들과의 국제적 경제 협력 강화, 아태국가와의 경제 통합, 극동과 바이칼 지역 내 접경지역의 사회-경제 발전임
- 주요 과제는 ①리스크 및 운송비 감소, 화물 안정성과 정시성을 실현할 수 있는 운송절차의 효율성 증대, ②개발, 인프라 재개발 및 현대화, 처리능력 증대, 화물선적 최적화, 현대적 물류센터 개발, 행정장벽 제거 등을 통한 화물 운송의 효율성 증대임

<국제교통회랑 개발 계획>

프리모리에-1	프리모리에-2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포그라니치니 차량전용세관 건설(다차선) • 폴타브카 차량전용세관 건설(2차선) • 그로데코보 철도역 건설 • 포그라니치니 철도세관 건설 • 고스그라니차-그로데코보-블라디보스토크-나호트카-보스토치니항 구간 철도선 건설 • 러·중국경 - 블라디보스토크항, 나호트카항, 보스토치니항 구간 자동차전용도로 건설 • 블라디보스토크항, 보스토치니항, 나호트카항 내 컨테이너 터미널 및 항만세관 건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크라스키노 차량전용세관 건설(다차선) • 자루비노 항만세관 건설 • 마할리노 철도세관 건설 • 고스그라니차-자루비노 구간 철도선 건설 • 라중국경 - 자루비노항 구간 자동차전용도로 건설

자료: government.ru(러시아 정부 공식 홈페이지), KMI 재구성

- 국제교통회랑 개발은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될 계획임



<국제교통회랑 단계별 개발 계획>

단계(기간)	세부 내용
1단계 (2016년 - 2017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프리모리예-1' 이용, '프리모리예-2' 계획 수립 • '프리모리예-1'을 통해 연간 200만-300만 톤 물동량 처리되고 있음 • 중국발 통과화물에 대한 기존 문제점 해결 • 크라스키노, 마할리노 세관 재건축 • 수분하 - 우수리스크 - 나호트카항/보스토치니항 구간 철도 인프라 구축 • 우수리스크 - 포그라니치니 - 고스그라니차 구간 도로 재건설 • 보스토치니항 처리능력 향상 • 마할리노 - 카미쇼바야(마할리노) - 고스그라니차 - 러·중 국경 철도 인프라 구축 • 바라노브스크 - 우수리스크/마할리노 철도 인프라 구축 • 교통 인프라 부분의 투자자 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준비
2단계 (2018년 - 2019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프리모리예-1' 이용, '프리모리예-2' 인프라 개발 착수 • '프리모리예-1'을 통한 처리 물동량 연간 400-500만 톤으로 확대 • 1단계에서 진행된 3건의 철도 인프라 구축 공사와 1건 도로 재건설 계속 진행
3단계 (2020년 - 2030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프리모리예-1', '프리모리예-2' 이용 • 자루비노항에 연간 6,000만 톤 처리가 가능한 항만복합단지 개발 • 자루비노항 - 크라스키노 세관 구간 도로 건설 • 고스그라니차 - 카미쇼바야(마할리노) - 자루비노항 구간 철도 건설

자료: government.ru(러시아 정부 공식 홈페이지), KMI 재구성

- 예산 조달 방법으로 1단계는 예산외 지출, 민관협력의 개발기관 또는 재정기관의 예산으로, 2, 3단계는 민간투자자와 투자를 희망하는 개발기관 및 재정기관에 의해 이루어질 계획임



- 국제교통회랑 개발을 통해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
 -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 개발을 통해 최대 물동량 창출 가능 및 리스크 감소 기대
 - 2030년 연해주 연간 실질GDP 300억 루블까지 증가 기대
 - 연간 세수 50억-60억 루블 확보 기대
 - 4천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대

국제교통회랑 개발에 대한 우려사항

- 국제교통회랑 개발은 오래 전부터 구상되어온 계획임
 - 하지만 변화하고 있는 물류에 대한 이해, 트렌드, 주변국들의 관심분야 등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오래된 구상이라는 의견이 있음
- 극동해양연구소(FEMRI) 미하일 홀로샤 수송개발부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국제교통회랑 개발에 대해 거시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한다고 함
 - 새로운 물류 트렌드 반영을 위해서는 지역교통 시스템 개발에 대한 접근을 기존과 다르게 즉, 동북아시아의 거시경제 트렌드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지역경제 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관점의 접근이 필요함
 - 또한 현재 분리되어 개발 되고 있는 '프리모리예-1'과 '프리모리예-2'를 이어주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하나의 물류시스템이 될 수 있게 해야 함

자료: <http://government.ru/>, <http://portnews.ru/>(검색일: 2017년 2월 3일)

이하림 연구원
051-797-4758, harimy@kmi.re.kr



물류동향

캄차트카 자유항, 해운·물류 클러스터 건설

- NOREBO 그룹의 세로그라즈카 터미널(ООО "Терминал "Сероглазка")사(이하 세로그라즈카 사)가 캄차트카 자유항 두 번째 입주 기업으로 선정됨
 - 이번 프로젝트는 캄차트카 자유항 내 어선 유지·보수 및 냉동·일반 컨테이너 환적을 위한 현대적 시설의 해양터미널 건설임
 - 또한 터미널 내에 수산물 저장 및 보관을 위한 창고시설도 건설하고자 함
- 이번 프로젝트는 민간부문에서 7억900만 루블¹⁾이 투자될 예정임
 - 동 프로젝트를 통해 캄차트카 지역 내 인프라 클러스터가 구축되며, 59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계획임
 -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세로그라즈카 사는 캄차트카 지역 및 극동러시아에서의 수산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, 현재 접안 시설 및 냉장저장시설 등의 건설 및 재건축을 시작함
- 이번 프로젝트는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2027년에 완공될 예정임
 - 15,000 톤 규모의 냉동·냉장시설이 건설되며 연간 약 80만 톤까지 환적 처리물동량을 확대할 계획으로 이 중 수산물이 약 30만 톤을 차지함
-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캄차트카항은 극동러시아 지역에서 수산물 물류센터로의 중요한 입지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
 - 현재 캄차트카 자유항에 투자기업으로 2개의 기업이 선정됨
 - 극동개발공사는 지금까지 15건의 투자신청을 받았으며, 이는 45억 루블²⁾에 해당한다고 발표함
 - 또한 이를 통해 454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

자료: http://minvr.ru/press-center/news_minvostok/?ELEMENT_ID=4993(검색일: 2017년 2월 3일)

김은미 리포터

051-797-4758, usea1004@gmail.com

1) 한화 136억 9,079만원(2017년 2월 6일 하나은행 환율 기준)

2) 한화 868억 3,500만원(2017년 2월 6일 하나은행 환율 기준)